

OA-09

기후온난화 적응 중·북부지역 나물콩 안정생산 재배기술정진호^{1*}, 이재은¹, 김성국¹, 전원태¹, 신수현¹, 김민태¹¹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서론]**

기후온난화로 나물콩의 재배지역의 북상 및 콩 작황 등 안정생산에 급격한 변이 발생하였고, 나물콩은 제주, 전남이 주산지로 주산단지의 기상이변, 소득감소로 원료 공급이 불안하며, 수도권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나물콩, 녹두나물의 수요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비한 중북부지역에서의 재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모작 콩 재배의 확대에 따른 중·북부지역의 나물콩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해 재배지 이동에 따른 나물콩의 생육 및 수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재료 및 방법]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 연구포장(수원, N37.26, E126.98)에서 나물콩(소청자, 소청자, 해원, 해품)를 시험재료로 사용하였다. 파종시기는 6월 5일, 6월 20일, 7월 10일 3시기에 파종하였다. 녹두는 6월 20일에 파종하였다. 재식거리시험은 풍산나물, 소청자, 해원, 해품을 6월 25일에 파종하였다. 60×10cm, 60×15cm, 70×10cm, 70×15cm로 1주 2본이고, 시험구 면적은 250m²(휴장 5m 72열)로 난괴법 3반복으로 시험구를 배치하였다. 재식거리에 따른 나물콩의 외관품질 관찰 및 입중 분포를 4종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재식거리별 생육특성 및 백립중, 수량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나물콩의 파종시기에 따른 수량을 보면 풍산나물, 소청자, 해품은 6월 5일 파종에서 가장 높고, 해원은 6월 20일 파종에서 높았다. 6월 5일 파종은 수량 지수의 100으로 보았을 때 수량지수를 보면 소청자, 해품은 파종시기가 늦을수록 수량지수가 45~48%로 감소가 많았고, 해원은 6월 20일 파종에서는 8%가 증가하였으나 7월 10일 파종은 44%감소하였다. 풍산나물콩은 6월 20일에서 7%, 7월 10일 파종에서 21% 감소하였다. 소청자, 해원, 해품은 파종시기가 늦을수록 알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식거리에 따른 나물콩의 생육을 보면 경장을 보면 70×10cm에서 가장 크고 60×10cm, 60×15cm는 같다. 경태는 60×10cm, 60×15cm, 70×10cm은 같고 70×15cm가 크게 나타났다. 수량은 70×15cm > 70×10cm > 60×15cm > 60×10cm 순으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70×15cm에서 협수, 립수, 백립중, 수량이 높았다. 중부지역의 나물콩 연구가 더 진행되어 재배적인 측면과 환경적응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안정생산체계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역의 나물콩 연구가 더 진행되어 재배적인 측면과 환경적응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안정생산체계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나물콩, 녹두의 경우 만식재배 시 크기와 돌콩 비율, 나물 발아율 등 많은 고려 요소가 필수요소로 첨가 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 재배적인 측면과 식품으로서의 가치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정확한 품종 제시가 가능해 질 것이다.

[사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 (과제번호: PJ0125160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31-695-0647, E-mail: ideaway@korea.kr